

고전음악의 이해 과제

2016025041 소프트웨어전공 하태성

1.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비제 오페라 <카르멘>의 줄거리를 조사해오세요.

- <피가로의 결혼> : 피가로는 백작 부인의 하녀 수잔나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피가로와 수잔나는 희대의 바람둥이 알마 비바 백작이 로시나와 결혼을 했지만 수잔나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것을 알아채고 피가로는 복수를 계획한다. 피가로의 아리아 "Se vuol ballare, signor Contino, il Chitarroni le suonero"는 두고보자는 피가로의 결심이반영되어있다. 한편 백작 저택의 가정부 마르첼리나는 피가로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백작과 손을 잡는다. 그들은 예전에 피가로가 마르첼리나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을 제때 갚지못할 경우 결혼도 하겠다는 서약을 한 각서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 때 케루 비노가 등장한다. 케루비노는 백작 저택에 일을 배우러 왔다가 예쁜 여자만 보면 유혹하려고 하다 저택에서 쫓겨난 미소년이다. 그는 수잔나에게도 접근했다가 피가로 때문에 포기하고 최근엔 백작부인에게 접근하려고 한다. 그는 백작 저택에 복직하기위해 수잔나와 피가로에게 부탁하러 왔다가 마침 백작이 수잔나의 방에 들어와 그는 얼른 숨는다. 그 때 피가로가 마을사람들과 함께 케루비노를 너그럽게 일자리를 다시 주고 백작님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노래를 부르며 들어온다. 백작은 어쩔 수 없이 케루비노를 복직시키되 연대장교로 임명해 멀리 보낸다. 백작부인은 자신에 대한 백작의 사랑이 식어버린 신세를 한탄하는 아리아를 부른다. 이런 백작부인에게 피가로가 와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것처럼 해 백작의 질투심을 자극하면 백작도 부인에게 관심을 돌리고, 더는 수잔나에게 치근덕대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얘기한다. 그 때 마르첼리나가 변호사 바르톨로와 함께 피가로가 돈을 갚지 않았으니 약속을 이행하게 해달라고 판결을 요청하고 백작은 마르첼리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때 마르첼리나는 피가로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그가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임을 알게되었고 결혼 판결은 무효가 된다. 한편 피가로와 수잔나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수잔나는 백작을 유혹하기위해 백작부인과 함께 쓴 편지를 백작에게 건넨다. 백작부인과 수잔나는 옷을 바꿔입고 나간다. 백작은 이 사실도 모르고 수잔나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다하지만 사실 수잔나의 옷을 입은 백작부인이었다. 백작은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밝혀지자 망신을 당하고 백작부인이 모두를 용서하며 해피엔딩으로 오페라가 끝난다.
- <카르멘> : 배경은 1830년 세비야와 그 주변이다. 세비야의 담배공장에서 군인들이 할 일 없이 서성이는데 아름다운 미카엘라가 남자친구 호세 상병을 만나러 온다. 마침 담배공장에서 휴식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자 아가씨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들은 군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유혹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 여인들 중 가장 최고는 집시 카르멘이다. 그녀는 아리아를 부르며 호세를 유혹하지만 호세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휴식이 끝나자 여공들은 담배공장으로 들어가지만 갑자기 공장 안에서 여인들의 고함소리가 들린다. 카르멘이 다른 여인과 싸움을 했기때문이다. 체포된 카르멘을 감방까지 호세가 연행하는데 호세는 카르멘의 매력에 빠져 감방을 탈출하게 도와준다. 한달 뒤 담배공장에서 쫓겨난 카르멘은 마을의 어느 주막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있고 거기엔 호세도 있다. 인기 많은 투우사 에스카미요가 팬들과 함께 선술집으로 들어서면서 '투우사의 노래'를 부른다. 카르멘의 마음은 에스카미요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밀수꾼들이 등장하자 호세는 군인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 생각해 호세가 밀수에 가담하도록 부추긴다. 카르멘에게 빠진 호세는 밀수 패에 합류한다. 선술집으로 에스카미요가 카르멘을 만나러 오고 호세는 에스카미요에게 시비를 걸어 칼싸움을 벌이지만 이 때 카르멘의 마음은 호세에게서 멀어진다. 마침 미카엘라가 호세를 찾아 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호세는 마지못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투우장에서 호세가 에스카미요와 있는 카르멘에게 사랑을 말하지만 카르멘은 차갑게 거절하고 호세는 순간 정신이 돌아 칼로 카르멘을 찌르고 호세는 빨간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카르멘의 위로 쓰러진다.

2. 아래 링크된 음악을 미리 감상해 보고, 소감을 써 오세요.

-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중 "포근한 산들바람이(che soave zeffiretto)" : 여성 2중창과 함께 은은한? 반주가 어우러져 뭔가 섬세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포근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든다. 마치 열린 들판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느낌이 드는것 같다.
- 비제 <카르멘> 중 "사랑은 자유로운 새(L'amour est un oiseau rebelle)" : 카르멘이 남자를 유혹할 때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자신에게 빠진 남자들을 가지고 놀며 자유롭게 사랑을 추구하는 카르멘을 잘 표현하는 노래라는 생각이 든다.